



<만파식적>에 나타난 신이성고

저자 (Authors)	이구의
출처 (Source)	어문학 , 2002.2, 295-319(25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2002.2, 295-319(2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2351
APA Style	이구의 (2002). <만파식적>에 나타난 신이성고. 어문학, 295-31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3 11:3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萬波息笛〉에 나타난 神異性攷

李 九 義 *

〈목 차〉

- | | |
|----------------|-------------------|
| 1. 머리말 | 2) 후반기 시작과 왕조의 흥성 |
| 2. 神異性이 마련된 契機 | 3) 만민화합과 인간성 회복 |
| 3. 서사구조와 그 의미 | 4. 맺음말 |
| 1) 時空현상과 인간 행위 | |

1. 머리말

‘萬波息笛’은 『三國遺事』 卷第2 紀異篇에 있는 文武王과 感恩寺 · 利見臺에 얽힌 설화이다. 이 설화의 시대적 배경은 신라가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뒤, 즉 신라의 국운이 가장 왕성했던 때이다.

지금까지 만파식적에 관한 논문은 다섯 편인데, 그 필자는 김영태, 서정범, 김상현, 황영수, 김영숙이다¹⁾. 김영태는 만파식적 설화를 통하여 신라 통일 직후의 호국사상과 이 만파식적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 설화는 문무왕의 통일을 완수한 위업과 사후에도 호국룡이 되겠다고 서원한 그 철저한 호국 정신에 감사하고, 또 국가의 태

* 영남대 강사

- 1) 金煥泰, <만파식적설화고>, 『동국대학교 논문집』11, (동국대학교, 1973.)
徐廷範, <방언에서 본 만파식적과 문무왕릉>, 『한국민속학』8, (한국민속학회, 1975)
金相鉉, <만파식적 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34, (한국사연구회, 1981)
——, <만파식적 설화의 유교적 정치사상>, 『신라사상과 문화』 (서울: 一志社, 1999. 6. 30)
黃壽永, <신라법종과 만파식적 설화> 『신라문화』1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金榮淑, <‘만파식적’ 설화의 전승과 시적 변모 양상 -조선시대 영사악부를 중심으로- 『신라문화제 학술발표 논문집』11, (신라문화선양회, 1990)

안을 가져온 그들 이성의 공적과 위덕을 자손만대에 길이 전하고 영원한 호국의 성덕을 기리고자 한 신라인의 칭송이요 국태민안의 성세를 구가한 내용의 설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만파식적 설화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고찰했다. 서정범은 방언에 존재하고 있는 만파식적과 문무왕릉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김상현은 만파식적 설화의 정치적, 사상적 의의로서 護國寶로서의 의미·유교 정치 이념의 표방·예악 사상의 강조 등을 들고 있다. 황영수는 만파식적 설화와 범종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으며, 김영숙은 만파식적 설화의 전승과 변모 양상을 조선시대 영사악부와 결부시켜 고찰하고 있다. 영사악부가 역사의 문학화란 기본 시각에서 문학과 역사의 상보적 연구를 위해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작품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 <만파식적>에서 일연이 말하려고 했던 神異性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고찰한 적이 없다.

본고는 위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만파식적> 설화 속에 내포하고 있는 神異의 意味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겉으로 드러난 의미가 아니라 일연이 이 설화에서 숫자나 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역』의 이론 가운데 象數學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2. 神異性이 마련된 契機

一然은 그가 편찬한 『삼국유사』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와는 그 정신 세계 면에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통하여 현실 세계를 강조한 반면, 일연은 『삼국유사』를 통하여 신이 세계를 강도하고 있다. 이는 그가 그만큼 초월적인 존재를 중시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가 신이성을 부여한 의도는 『삼국유사』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옛날 성인이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교화를 베푸는데 있어서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나라를 일으키려함에 있어서는 符命을 받고 圖錄을 받아 받드

시 남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고 큰그릇을 쥐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²⁾라고 하여 공자가 『논어』에서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³⁾고 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초인간적인 힘에 의한 역사의 발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반대로 인간의 도덕적 행실에 의하여 국가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바로 공자의 입장이고, 유교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일연은 그러한 입장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국가의 흥망에 초인간적인 힘의 작용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예를 많이 들어 보이고 있다. 즉, “황하에서 圖가 나왔고, 낙수에서 書가 나와서 성인이 일어났다. 무지개가 神母를 둘러 伏羲가 났고, 용이 여등을 감축하여 염제가 났다는 것 등이다. 이것은 초인간적인 힘의 작용이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⁴⁾.

위에서 보았듯이 일연은 초인간적인 힘의 작용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신라가 통일 위업을 달성할 때쯤에는 어쩌면 이러한 초인문적인 사상이 더욱 필요했을 것이다. 물론 만파식적은 설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 하지만 설화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이전에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했을 것이다. 필자는 일단 만파식적 설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일연이 자신의 神異性⁵⁾을 부여했다고 보고, 역사와 만파식적과의 관계를 만파식적이 내포하고 있는 신이성을 고찰함으로써 해결해 보려 한다.

2) “古之聖人，方其禮樂興邦，仁義設教，則怪力亂神，在所不語，然而帝王之將興也，應符命受圖籙，必有以異於人者，然後能乘大變，握大器，成大業也。『三國遺事』奇異卷第一。

3) “子不語怪力亂神” 『論語』卷7 <述而>篇。

4) 李基白, “三國遺事 紀異篇의 考察”(新羅文化 第1輯, 東國大學校 新羅文化 研究所, 1984.12.), p.14.

5)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고찰>, 『창작과 비평』41, 1976 참조.

또 鄭求福은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정신문화 연구원, 1987) 13쪽에서, “기이편은 수록한 일연은 흥법편 이하의 신비주의를 왕과 일부 특수한 인물의 예시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지극한 信心에 의하여, 또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보통 인간으로서의 믿기 어려운 정도의 인간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고 색, 물질, 세계를 넘어서 時空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앙상의 신비로움을 왕의 신화, 왕들의 신이한 일들, 김유신의 영험적인 사례를 통하여 예시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3. 서사구조와 그 의미

1) 時空 현상과 인간 행위

만파식적의 구성을 의미 단위로, ①神文王 卽位와 感恩寺 創建, ②萬波息笛의 緣起, ③萬波息笛의 繼起 → 夫禮郎의 환국과 萬萬波波息笛 등으로 가를 수 있다. ① ② ③ 가운데 ②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즉, ①은 서두 부분에 해당하고 ②는 본문 또는 중간부분으로 이 만파식적 설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③은 일종의 사족에 불과해 이 만파식적 설화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②이다. 본 고에서는 ②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②를 다시 세분하면,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여섯 부분에서 일연이 이 설화를 통해서 志向하고자 했던 바를 다소나마 알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아래의 표1을 통해서 서사구조를 알아보고, 이어서 각 단락마다 함축된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표1에서 ②의 내용을 갈라 보았다. ②의 여섯 단락과 ①, ③ 한 단락씩을 합하면 모두 여덟 단락이 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⁶⁾. 그러나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단락을 나눌 때 여덟 단락이 된다. 일연이 여덟 단락으로 가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讖緯說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주역』의 小成卦 8卦, 즉 伏羲 八卦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생성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⁷⁾. 즉, 太極이 갈라지면 兩儀가 되고, 양의가 다시 四相으로 갈라지고, 사상이 다시 八卦로 나뉜다. 이것은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는 一生二法으로 자연의 생성변화의 법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6) 김상현은 “만파식적 설화의 형성과 의의”에서 10 단락으로 갈랐다.

7) “팔괘에 조금 이루어, 이끌어 펴며 같은 무리에 따라 확장하면, 이 세상의 能事가 다할 것이다(八卦而小成, 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天下之能事畢矣.)” 『周易傳義』 권22, <繫辭上傳>.

<표 1>

단락	날짜	시간과 공간에 나타난 자연현상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행위
제1단락	5월 1일	동해에 작은 산이 떠서 감은사로 향해 오는데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함	짐을 쳐서 용의 조화인 줄 알지만, 이에 용하여 행동하지 않고 7일까지 기다림
제2단락	5월 7일	거북의 머리와 같은 산 위에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돌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됨.	왕이 利見臺로 나아가 바다에 뜬 작은 산을 바라봄. 使者를 시켜 그 산을 살펴보게 함.
제3단락	5월 8일 - 15일	午時에 대나무 합하여 하나가 됨. 천지가 진동하고 폭우가 일어나 7일이나 계속됨.	
제4단락	5월 16일	비로소 비바람이 걷히고 바다도 평온해 짐. 산에 들어가니 용이 옥대를 바침. 왕이 나오자 산과 용이 잡자기 보이지 않음.	왕이 배를 타고 산에 들어감. 용으로부터 옥대를 받음. 왕이 용에게 산과 대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 까닭을 물음. 용이 대답하기를 왕이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가 화평해질 징조라고 함. 왕이 놀라고 기뻐서 오색 비단과 금과 옥을 용에게 주고, 使者를 시켜 다시 대나무를 베어 내게 함. 왕은 감은사에서 복음.
제5단락	5월 17일	왕 일행은 祇林寺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 옥대의 둘째 쪽을 떼서 넣으니 곧 하늘에 올라가고 그 땅은 못이 됨.	태자 理蒸(효소왕)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축하하고, 옥대를 살피고 나서 왕에게 "이 옥대의 여러 쪽들이 모두 진짜 용들입니다."라고 함. 태자의 말을 듣고 옥대의 쪽 하나를 불에 넣어 봄.
제6단락	5월 17일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나옴. 피리 소리가 가뭄에는 비를 내리게 하고, 장마질 땐 비를 그치게 하며, 바람을 가라앉히고 물결을 잡 재움.	왕이 돌아와 대나무 피리로 만들어 天尊庫에 간직하고 이름을 萬波息笛이라 함.

②는 바로 ‘만파식적’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緣起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②의 내용 가운데 단락마다 등장하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서두 부분에서 말했듯이, 一然은 이 숫자를 활용하여 소위 讖緯說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일연 자신의 생각⁸⁾인지, 아니면 전하는 기록인지 지금은 확정할 수 없지만, 일연은 숫자 속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위의 단락에 함축한 의미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후반기의 시작과 왕조의 흥성

신라 왕조는 필연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역』의 64괘와 그 의미가 서로 부합한다. 『주역』의 64괘 가운데 不倒轉卦가 8, 倒轉卦가 56인데, 『주역』의 64괘 가운데 不倒轉卦를 제외한 괘, 즉 도전괘의 수와 신라 임금의 수는 일치한다.

그리고 이 만파식적 설화의 근원이 되는 신문왕은 바로 신라 31대 임금이다. 신문왕의 아버지인 30대 문무왕은 29대 무열왕에 이어 삼국 통일을 완수한 분이다. 1대 박혁거세에서 30대 문무왕까지를 신라에 있

8) 『삼국유사』의 성격에 대하여 이를 ①역사서로 보는 견해, ②불교사 내지 불교문화사로 보는 견해, ③설화집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①은, 이기백, 위의 논문,

김철준, <고려중기의 문화의식과 사학의 성격>, 『한국사연구』9, (한국사연구회, 1973).

김영태, <일연의 역사의식>, 『경희사학』5, (경희대학교 국사학과, 1974).

②는, 김영태, <삼국유사의 체재와 그 성격>, 『동국대학교논문집』13, (동국대학교, 1974).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관>, 『한국사연구』20, (한국사연구회, 1978).

고익진, <삼국유사찬술고>, 『한국사연구』38, (한국사연구회, 1982)(이 논문은 불교사로 보면서도 일반사서로 파악하고 있다.)

③은,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연구사와 그 문제점>, 『한국사연구』38, (한국사연구회, 1982)

황패강, <삼국유사와 불교설화> 『삼국유사의 연구』(서울: 중앙출판사, 1982) 등인데, 필자는 ①과 ③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본고를 진행한다.

어서 先天期라 한다면, 31대 신문왕부터는 선천의 고개를 지나 바로 후천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제30대 문무왕은 바로 선천의 마지막 임금으로서 문화를 가장 왕성하게 한 임금이라 할 수 있다. 29·30·31을 각각 『주역』에 나오는 궤의 순서로 나타내면 坎, 離, 咸卦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설화에 등장하는 달(月)과 날(日)도 작중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숫자 속에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의 ②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우선 첫째 단락에서 5월 1일은 사건의 시작을 알린다. 동해의 작은 산이 감은사를 향해 떠온다고 했다. 감은사는 동해에 있다. 또 신라가 접하고 있는 바다도 우리가 말하는 동해이다. 이 동해는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만물의 원소가 되며 어떤 일의 시작을 알린다. 즉, 東은 주역의 乾卦에서 말한 元亨利貞 가운데 元에 해당한다. 元은 바로 생명의 씨앗이 되는 元素를 의미한다. 또 1은 오행 가운데 水에 해당한다.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즉,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신라가 새로이 태어난다는 의미로 보아도 될 것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에는 불완전한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 삼국을 통일했으니 완전한 나라가 된 것이다. 바로 완전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5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문왕이 즉위하고 실제로 5월 1일에 감은사로 행차했는지, 아니면 가설적인 날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5’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설화의 시간적 배경 가운데 달(月)은 5월이다. 실제로 임금이 행차하여 奇變이 일어난 때가 5월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연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어떤 사람이 가공으로 설정한 달일 수도 있다. 5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행이다. 오행은 생수인 기본수 1, 2, 3, 4, 5 즉 水火木金土의 元素이다. 즉, 오행은 대자연의 흐름인 것이다. 그 운행은 相生일 경우도 있고, 相剋일 경우도 있다. 바로 生剋의 원리에서 조화가 있는 것이다. 하늘의 수가 다섯이고 땅의 수가 다섯이니, 다섯의 자리가 서로 맞으며 각각 합함이 있어, 이것이 변화를 이루며 귀신을 행하는 것이다⁹⁾. 이 오

행을 1·3·5·7·9 天數와 2·4·6·8·10地數에 대입하면, 1과 6은 水, 2와 7은 火, 3과 8은 木, 4와 9는 金, 5와 10은 土에 해당한다. 이것들이 합하고 변하는데, 이런 변화의 도를 아는 사람은 곧 귀신이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¹⁰⁾.

또 한편 5는 복희 팔괘 가운데 다섯 번째의 괘를 가리킨다고 해도 될 것이다. 복희 팔괘 가운데 다섯 번째는 巽卦이다. 이 巽卦의 의미는 바람(風), 또는 遜順함을 뜻한다. 遜順의 대상은 바로 자연의 이치이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한다는 의미이다. 자연에 이치에 따라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바람은 자연의 바람도 될 수 있으나, 교화를 가리킨다. 君王이나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자연의 이치에 따라 교화한다는 것이다. 임금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백성들을 교화하면 나라가 안정된다. 나라가 안정되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3) 만민의 화합과 인간성 회복

① 만민화합

5월 7일즈에서 일연은 산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거북의 머리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 산과 거북은 어떠한 관계인가? 『삼국유사』를 읽다가 보면, 산과 거북이 서로 상응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즉, 이 <만파식적>과 뒤의 <駕洛國記>에 실려 있는 <龜旨歌>가 그 대표적이다. 일연은 왜 산과 거북을 결부시켰을까? 이 만파식적에서는 산의 모습이 거북의 머리와 같다고 하였으며, <구지가>에서는 구지봉이라는 산 위에서 “거북아 거북아”라는, 거북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거북과 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연의 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설화를 일연이 재구성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일연의 말이냐, 아니면 이미 존재했던 것을 일연이 재구성했느냐 하는 것을 규

9)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 而各有合,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周易傳義』卷 22, <繫辭上傳>9章.

10) “知變化之道者, 其知神之所爲乎” 『周易傳義』 위와 같은 곳.

명하기란 닭이 먼저나 아니면 달같이 먼저나를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나 산과 거북의 관계는 단순히 외면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무의미하게 표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과 거북의 관계에 있어 내포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거북은 물론 十長生 가운데 하나이다. 또 거북은 수륙 양생이라는 특성으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 <구지가>에서의 거북은 왕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신성 존재에게 인간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이다.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거북이 지니는 근원적 상징은 우주적 심상이다. 이는 거북의 생김새가 위는 하늘처럼 둥글고, 아래는 땅처럼 편편하여 우주의 축도와 같으며, 수명 또한 수천 년을 산다고 믿어질 만큼 오래 산다는 생물학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상징적인 동물인 용, 봉황, 기린과 더불어 신령스런 동물로 받아들이는 초월적인 신성관념, 수명이 긴 데서 비롯된 장생 관념, 거북점에서 볼 수 있는 예언적 영험력, 흔히 신의 사자로 생각되는 매개자로서의 기능 등 거북에 딸린 상징관념의 대부분이 이러한 우주적 심상의 직접적 구현으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기능은 우리 나라, 중국, 일본에 두루 나타나는, 가장 독자적인 거북의 상징관념이다.¹¹⁾

일연이 산의 모습을 거북의 머리와 같다고 했다. 이 말을 미루어 보면, 바로 산 위에 거북이 있는 형상이다. 이것은 거북과 산의 조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산 위에 거북의 형상이 있으니, 산과 거북의 만남이다. 거북은 水太極이다. 거북은 바로 복희 팔괘에서 兌卦를 가리키기도 한다. 태괘는 못, 즉 澤을 뜻하기도 한다. 산 위에 못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64괘 가운데 31번째 괘인 澤山咸卦에 해당한다. 이 태산합괘는 공교롭게도 31대 신문왕과 그 순서가 일치한다. 바로 일연이 이 설화를 서술하면서 주역의 괘의 의미와 신문왕을 일치시키고 있다. 먼저 咸卦의 辭를 보면, “함은 亨하나 貞함이 利하니 여자에게 장가들면 길하다.”¹²⁾ 라고 하고 있다. 이 괘에 대해 송나라 程頤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

11) 앞의, 韓國文化 상징사전, 28~42쪽 참조.

12) “咸亨利貞取女吉”『周易傳義』卷5, <咸卦辭>.

고 있다. 즉, “咸은 감동함이니, 感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咸에 ‘모두’의 뜻이 있어 남녀가 서로 감동하기 때문이다. 물건이 서로 감동함은 남녀 단한 것이 없는데 어리면 더욱 심하다. 무릇 君臣과 상하로부터 만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로 감동하는 도가 있으니, 물건이 서로 감동하면 형통할 이치가 있다.”¹³⁾고 하고 있다. 일연이 강조하고자 했던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산과 거북이 합친 모양, 즉 ‘함(咸)’이 이 설화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君民이 함께 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연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나머지 제1단락부터 제6단락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史實로 보아 신문왕은 무열왕과 문무왕의 시대를 지나 왕위에 오른 사람이다. 무열왕은 29대이다. 그리고 문무왕은 30대이다. 즉, 무열왕과 문무왕은 주역의 괘로 말하면 先天에 해당한다. 즉, 29번째의 重水坎卦¹⁴⁾와 30번째의 重火離卦¹⁵⁾에 해당한다. 29번째는 감괘는 혼란의 시대 내지는 어둠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열왕 때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상대로 영토확장을 꿈꾸며 전쟁을 하던 시기였다. 바로 천지가 험난한 시기였던 것이다. “하늘의 험함은 오를 수 없고, 땅의 험함은 산천과 구름이다. 임금은 험함을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니, 險의 때와 활용이 다르다.”¹⁶⁾고 할 수 있겠다. 30대 문무왕대는 離卦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때는 어둠의 시대를 지나 안정 또는 밝음의 시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감괘는 水, 즉 陰에 해당하고, 이괘는 火, 즉 밝음에

13) “咸感也。不曰感者，咸有皆義，男女交相感也。物之相感，莫如男女而少復甚焉。凡君臣上下以至萬物，皆有相感之道，物之相感則有亨通之理。” 위와 같은 곳, 위의 卦에 대한 <程傳>.

14) “습감은 거듭 험함이니, 물이 흘러가나 가득 차지 않으며 험함을 행하되 신의를 잃지 않는다(習坎重險也，水流而不盈，行險而不失其信).” 『周易傳義』 권11, <坎卦, 象辭>.

15) “離는 불음이요 밝음이니, 음이 위아래의 양에 붙은 것을 취하면 附麗의 뜻이 되고, 가운데가 허함을 취하면 밝은 뜻이 된다(離麗也，明也。取其陰麗於上下之陽，則爲附麗之義，取其中虛，則爲明義。離爲火，火體虛，麗於物而明者也).” 『周易傳義』 권11, <離卦, 程傳>.

16) “天險不可升也，地險山川丘陵也，王公設險，以守其國，險之時用大矣哉”。 위와 같은 곳, <象辭>.

해당한다. 어둠의 시대가 지나면 밝음의 시대가 오고, 혼란의 시대가 지나면 안정의 시대가 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편 이 설화에 등장하는 하나의 동물은 용이다. 용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용의 상징성을 들어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 ㉠ 용은 제왕, 또는 聖人을 상징한다.
- ㉡ 용은 辟師와 水神을 나타낸다.
- ㉢ 용은 豐農과 豐漁를 의미한다.
- ㉣ 용은 봄의 신으로 吉兆를 가져오는 善神을 가리킨다.
- ㉤ 용은 護法, 護國神을 의미한다.
- ㉥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變化無常한 靈物이다.
- ㉦ 용은 假想的으로 擬形化한 초월적 존재이다.
- ㉧ 용의 비늘이 36개라니 老陽數가 36이다. 이는 변하는 수이다.
- ㉨ 용은 남성과 남근을 의미한다
- ㉩ 용은 祥瑞와 風雲造化를 의미한다.¹⁷⁾

범은 山神이 龍은 水神을 상징하기도 한다. 용은 수신이면서 지상계의 비를 관장하는 것 외에 護法神 또는 護國神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호법의 경우 ‘명랑법사와 해룡’(명랑신인), ‘보양조사와 서해용’(보양이목), ‘의상대사와 동해용’(낙산2대성), ‘자장율사와 지룡’(황룡사9층탑), ‘진표율사와 용왕’(관동풍악) 등이 있다. 여기서의 용의 의미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水神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바다에 용이 등장했으니 말이다. 이 용 대신에 어떤 사람을 대입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위에 든 모두를 의미한다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열왕 때에는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했으며, 이에 따라 나라가 어지러웠다. 그러나 분무왕 대에 오면 비로소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나라가 안정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나라가 통일되었다고 해서 금방 사회, 또는 민심이 안정되는

17)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韓國文化 상징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4. 5. 초판 3쇄), 485~490쪽.
金炳浩, 周易講義(上), 筆寫本, 47쪽, 참조.

것은 아니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민심을 수습해야 된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왕이 먼저 率先垂範해야 된다. 바로 신문왕이 실천해야 할 급선무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신문왕은 많은 치적을 남기고 있다.

신문왕이 즉위하여 9년 동안 이룬 치적은 첫째 上大等 및 兵部令의 격하, 둘째 전제왕권의 확립을 위한 중앙 관부의 정비, 셋째 五廟制의 확립, 넷째 지방 통치제도의 정비, 다섯째 전제왕권의 확립과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해 국학 설립, 여섯째 中外官吏의 녹음을 폐하여 전제왕권의 확립을 들 수 있다¹⁸⁾. 신문왕은 정사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선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충실히 나라 일을 다스렸다. 따라서 민심이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왕과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② 명분을 바로함

제2단락 5월 7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앞의 도포에서 언급했듯이 거북의 머리와 같은 산 위에 대나무가 있다. 이 대나무가 낮에는 나뉘어 돌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주역』의 小成卦 가운데 일곱 번째 괘는 艮卦이다. ‘艮’은 ‘그친다’는 뜻이며, 또 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친다는 것은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쳐야 할 때는 그치고, 가야 할 경우에는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움직임과 가만히 있음이 때를 잃지 않아 그 道가 빛나게 되는 것이다¹⁹⁾.

그칠 곳에 그치면 제자리를 찾게 된다. 멈춤에 제 자리를 찾지 못하면 멈출 수 있는 이치가 없다. 공자는 ‘멈춤에 멈출 곳을 안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멈추어야 할 곳을 이룬 것이다.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다. ‘임금은 임금 노릇을, 신하는 신하노릇을, 아버이는 아버지 노릇을,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해야 한다’²⁰⁾는 것이다. 즉, 모든 사물에는 각각 제 자리가 있다. 萬事庶物이 제자리를 얻으면 편안하고 제자리를 잃으면 어그러진다. 성인이 천하를 순하게 다스리게 하는 것은 일을 만

18) 김상헌, 신라 사상과 문화, 89-91쪽 참조.

19) “艮止也, 時止則止, 時行則行, 動靜不失其時, 其道光明。” 『周易傳義』卷18 <艮卦, 象辭>.

20) “君君臣臣父父子子” 『論語』卷12, <顏淵>篇.

들고 법칙을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멈춤이 각각 제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²¹⁾

한편 5월 7일에는 대나무가 낮에는 갈라져 돌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의 대나무는 하나의 사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낮에는 갈라지고 밤이 되면 합한다는 것은 바로 陰陽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양에 해당하고, 밤은 음에 해당한다. 밤이 되면 합한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활동이 멈춘다는 것이다.

만물이 활동이 멈춘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다. 子時가 되면 양기가 생기기 시작하며, 반대로 午時가 되면 음기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한낮, 태양이 가장 中天에 왔을 때 음기가 생기기 시작하며, 반대로 밤이 가장 깊을 때 양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주역』의 괘로 말하면 앞의 것은 地雷復卦에 해당하고 뒤의 것은 山地剝卦에 해당한다. 주역 64괘 가운데, 復卦는 24번째이고, 剝卦는 23번째이다. 剝卦는 陰이 처음 아래에서부터 생겨서 점점 자라 極盛함에 이르러서는 여러 음이 陽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²²⁾.

復卦는 처음에는 한 陽이 생겨서 여러 음을 이겨 만물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서서히 양이 회복하니 이러한 여러 陽들이 오기를 기다린 뒤에야 물건을 낚는 공을 이루어 어그러짐이 없다²³⁾. 대나무가 갈라지고 합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운세를 가리키는 것이다²⁴⁾. 날

21) “聖人所以能使天下順治，非能爲物作則也，唯止之各於其所而已” 『周易傳義』卷18, <艮卦象辭傳>.

22) “陰始自下生，漸長至於盛極，群陰消剝於陽。” 『周易傳義』卷9, <剝卦傳>.

23) “一陽始生至微，故未能勝群陰而發生萬物，必待諸陽之然後，能成生物之功而无差忒，而朋來而无咎也。” 『周易傳義』卷9, <復卦傳>.

24) “문을 닫음을 ‘곤(坤)’이라 하고, 문을 엮을 ‘건(乾)’이라 하고, 한번 닫고 한번 엮을 ‘변(變)’이라 하고, 오가면서 다하지 않는 것을 ‘통(通)’이라 하고, 드러남을 ‘상(象)’이라 하고, 나타남을 ‘기(器)’라 하고, 만들어 씬을 ‘법(法)’이라 하고, 씬을 이롭게 하여 나가고 들어와서 백성들이 모두 사용함을 ‘신(神)’이라 한다(闔戶謂之坤，闔戶謂之乾，一闔一關謂之變，往來不窮謂之通，見乃謂之象，形乃謂之器，制而用之謂之法，利用出入，民咸用之謂之神).” 『周易傳義』卷23, <繫辭上傳>.

씨가 가장 더울 때는 가장 추울 때를 생각하고, 반대로 가장 추울 때는 가장 더울 때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음과 양이 서로 끊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끊어지지 않듯, 인간사의 이치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음양의 조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자연의 이치를 알면 현실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날과 그렇지 못한 날, 즉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이 도²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의 운세가 음양을 반복하는 가운데, 왕이 이견대로 나아가 바다에 뜬 작은 산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지 왕이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산을 바라보는 현상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바로 왕이 자신의 止行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③ 인간성 회복

제3단락에 오면 변고가 나타난다. 대나무가 낮에는 갈라지는 것이 이치에 맞으나, 8일이 되면 대나무가 낮에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전개될 어려움을 암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8일이 되면 자연의 이치가 遜順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伏羲 8괘를 두고 볼 때, 8은 바로 坤卦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땅의 이치는 순하다. 모든 것을 다 싣고 있으면서도 불평 한마디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다. 대나무가 낮에 합한다고 했으니,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은 것이다.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니, 자연 현상에 있어 異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이상 징후가 바로 폭풍우이다. 천지가 진동하고 폭우가 7일 동안 내렸다고 했으니, 7일 만에 平常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다²⁶⁾.

여기서의 이상 징후, 즉 천지가 진동하고 폭우가 내리는 것은 무엇을

25) “一陰一陽之謂道” 『周易』 <繫辭傳>(上) 5章.

26) 『주역』에는, ‘七日得(震卦 六二爻辭, 既濟卦 六二爻辭), ‘七日來復(復卦辭)’라는 말이 가끔 나타나곤 한다. 즉,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中道를 버리지 않으면 7일만에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인간 질서의 혼란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세계에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상하의 화합이 되지 않는다. 상하 화합이 되지 않으면 인륜이 무너지게 된다. 인륜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혼란하게 되며, 사회가 혼란하게 되면 각자의 위치가 불안하게 된다. 각자의 위치가 불안하게 되면 백성들이 동요하게 되고 백성들이 동요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다.

제3단락에서는 처음에는 이상한 징후, 즉 질서가 잡히지 않은 혼란의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 즉, 용의 조화가 정지된 상태에서 최대의 격변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격변이 일어날 때에는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²⁷⁾. 산이 땅 밑에 있는 형상, 地山謙卦의 모습을 해야 혼란이 해결될 수 있다. 『주역』의 열 다섯 번째 괘가 謙卦이다. “겸은 형통하니 군자는 끝마침이 있다²⁸⁾.”고 했다. 즉, 덕이 있으면서도 자처하지 않음이다. 격변이 일어나 혼란이 지속될 지라도 사람이 겸손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程傳>을 보면, “군자의 뜻이 겸손함에 있으니, 이치에 통달하기 때문에 천명을 즐거워하여 다투지 않고, 내면이 충만하기 때문에 겸양하여 자랑하지 않는다. 겸손함을 편안히 여겨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아서, 스스로 낮추되 사람들이 더욱 높여주고, 스스로 숨되 덕이 더욱 밝게 빛난다. 이것이 이른바 ‘군자는 끝마침이 있다.’는 것이다. 소인에게 있어서는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다투고 덕이 있으면 반드시 자랑하니, 가령 겸손함에 힘쓰고 사모하더라도 또한 편안히 행하고 굳게 지키지 못하여 끝마침이 없다²⁹⁾.”고 하고 있다.

27) 『周易』, <乾卦九三爻辭>를 보면, “군자가 종일토록 조심하고 조심하여 저녁까지 두려워하며 조심하면 비록 위태로우나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无咎).”(『周易傳義』卷1)라는 말이 있다. 변혁의 시기를 알면 두려움도 조심도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기 위해서 끊임 없이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28) “謙亨君子有終”『周易傳義』卷6, <謙卦辭>.

29) “君子有終, 君子志存乎謙巽, 達理故, 樂天而不競, 內充故, 退讓而不矜, 安履乎謙, 終身不易, 自卑而人益尊之, 自晦而德益光顯, 此所謂君子有終也. 在小人, 則有欲必競, 有德必伐, 雖使勉慕於謙, 亦不能安行而固守, 不能有終也.”『周易傳義』卷6, <乾卦傳>.

④ 미래를 암시

제4단락에 오면 격변이 복구되고 산 속의 용이 옥대와 대나무를 바쳤다고 했다. 이것은 위 단락에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월 8일부터 15일까지의 일은 하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험의 대상은 바로 신라왕이라 할 수 있다. 신라왕, 즉 무열왕과 문무왕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시험한 것이다. 15일에 이르러 겸손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16일에 오면 바로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다.

제1단락부터 제3단락까지 여러 가지 시련을 거쳤다. 이러한 시련을 모두 참고 극복하니 바로 새로운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주역의 16번째 괘는 雷地豫卦이다. 큰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겸손하면 반드시 즐겁다. 그러므로 예괘로 받았다고 했으니, 大有와 謙 두 괘의 뜻을 이어 차례를 삼은 것이라고 했다.³⁰⁾ 즉, 大有卦와 謙卦를 이어 받았다는 것이다. 문명이 가장 왕성할 때는 겸손해야 된다. 큰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大有), 겸손하면 즐거움이 있다. 즉, '豫'는 安和悅樂을 의미한다. 사람이 겸손하면 편안하고 기쁜 일이 생김을 나타내는 것이다.

격변이 왔지만 왕은 이를 잘 극복했다. 격변이 복구되자 산 속의 용이 옥대와 대나무를 바쳤다. 그러나 왕이 나오자 산과 용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이에 왕은 자신이 직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산에 들어갔다. 용에게 산과 대가 혹 갈라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는 까닭을 물어보고는 의문을 품는다. 여기서의 의문은 미래를 예견하고 있을 뿐이지, 미래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좋은 미래를 맞기 위해서는 바로 겸손해야 하기 때문이다.

왕이 산과 대나무의 신비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의문을 용을 통해서 풀었다. 바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인 것이다. 앞에서 용의 상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었지만, 사실 주역에서의 용은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산과 대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한다는 것은 바로 太極

30) “大有而能謙必豫，故受之以豫。承二卦之義而爲次也。”『周易傳義』卷7, <豫卦傳>.

과 兩儀는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태극이 양의이고, 양의가 곧 태극이라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하듯이, 인간의 이치도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즉, 왕과 백성은 둘로 갈라져서는 안되고 하나로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다. 태극과 음양이 갈라지면 자연의 운행이 순탄하지 않듯이, 왕과 백성이 둘로 갈라지면 나라의 운세가 평안하지 않은 것이다. 一然이 이 설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왕이 놀라고 기뻐서 오색 비단과 금과 옥을 주고 使者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 가지고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다. 비단과 금, 그리고 옥이 등장하니 화려하고 소중함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의 오색은 바로 자연이 운행할 때 相生과 相剋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五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행은 태극과 음양, 그리고 四相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희 팔괘가 생기게 된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왕이 바다를 건너 와서 감은사에 유숙했다고 했다. 감은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절이다. 감은사는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이루고 난 뒤 부처의 힘으로 왜구의 침입을 막고자 바다 가에 절을 세우다가 죽었다. 그 뒤 그의 아들 신문왕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재위 2년에 완성한 절이다. 그 의미는 바로 자연의 질서에 왕이 和順하면 만민이 기뻐하여 복종하고³¹⁾, 윗사람이 감동하면 아랫사람이 이를 따른다는 것이다.

⑤ 자연질서를 따름

격변이 일어난 상황에서 항상 자신의 행실을 조심하고 마음을 돈독히 하여 위기를 넘기는 과정이 제3단락이다. 이러한 위기를 넘기니 앞날이 밝아오는 것이 바로 제4단락이다. 이러한 앞날이 밝아올 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모든 일이 다시 혼란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나 제5단락에서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있다. 이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주체는 바로 萬民을 다스리는 왕이다. 따라서 一然은 주역의 17번째 괘와 서로 연결시켜 왕이 지향해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31) “諸侯和順則萬民悅服”『周易傳義』卷7, <豫卦傳>.

“수는 크게 형통하니 정함이 이롭다. 허물이 없으리라.”³²⁾고 한 것이나, “크게亨通하고貞하여 허물이 없어서 친하가 때를 따르니, 때를 따르는 뜻이 크다.”³³⁾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송나라의 성리학자 程頤(1033-1107)는 “군자의 도는 때를 따라 동하여 마땅함을 따르고 변화에 적응해서 일정한 법칙을 삼을 수 없으니, 도에 조예가 깊어서 기미를 알아 저울질 할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찬양하기를 ‘때를 따르는 뜻이 크다’ 하였으니, 무릇 찬양한 것은 사람들이 그 의의가 크음을 알아 살펴보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³⁴⁾라고 하였다. 사람은 “좋아하면 반드시 따름이 있다. 悅豫의 도는 물건이 따른 것이니, 기뻐하며 동하고 동하며 기뻐함이 모두 隨의 뜻³⁵⁾.”이기 때문이다.

왕과 그 신하들이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 옥대의 둘째 쪽을 떼어 물에 넣었다. 그러자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했다. 여기서 서쪽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기림사가 있는 위치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견대 → 감은사 → 기림사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위치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서쪽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서쪽은 西方淨土, 즉 부처님이 사는 곳, 또는 극락세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다. 바다의 동쪽인 신라가 바로 부처님의 나라, 극락세계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일연이 승려였기에 이러한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淨土에서의 경사로움은 단지 신문왕 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태자 理恭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즉, 신문왕이 그의 아들에게 계승한 것이다. 옥대는 고귀한 신분을 가리킨다. 옥대 의 여러 쪽 가운데 그 둘째 조각을 떼어냈다고 했다. 여기에도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32) “隨, 元亨利貞, 无咎”『周易傳義』卷7, <隨卦辭>.

33) “大亨貞无咎, 而天下隨時, 隨時之義, 大矣哉.”『周易傳義』卷7, <隨卦象辭>.

34) “君子之道隨時而動, 從宜適變, 不可爲典要, 非造道之深, 知幾能權者, 不能與於此也. 故贊之曰, 隨時之義大矣哉, 凡贊之者, 欲人知其義之大, 玩而識之也.”『周易傳義』卷7, <隨卦象傳>.

35) “豫必有隨, ……悅豫之道, 物所隨也, ……動而說, 皆隨之義”『周易傳義』卷7, <隨卦傳>.

있다. 『주역』의 卦 차례를 보면, 두 번째 괘는 重地坤卦이다. 곤괘의 덕은 柔順中正한 것이다. 坤卦 文言에 ‘至靜德方’이라고 했으니, 지극히 고요하면서도 덕은 방정한 것이 땅의 이치이다. 태자가 바로 이러한 덕을 계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 세상이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⑥ 온세상이 조화로움

제6단락은 ①단락부터 ⑤단락까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바로 위의 제5단락에서 자연의 질서를 따른 결과 온 세상에 용의 조화가 두루 미친 것이다.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에는 비가 개며,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은 잔잔해진 것이다. 바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자 자연도 인간에게 더 이상 격변을 부리지 않고 순조로워지는 것이다. ‘바로 雲行雨施’인 것이다. 여기서 작중 화자는 ‘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한다’는 이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자연의 질서를 잘 따른 나머지 나라에는 질서가 잡히고, 백성들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왕이 궁궐로 돌아와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천존고에 보관하고 이름을 萬波息笛이라 했다 한다. 이것은 비록 신문왕 자신만이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왕들에게까지 이러한 이치를 잇게 함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나무를 피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승려들이 절에서 울리는 북이나 종, 그리고 木魚와 서로 그 기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나태함을 깨우치고 자연에 순응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이 피리를 보관하는 창고 이름을 ‘天尊庫’라 했으니, 이 또한 자연의 이치를 받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피리의 이름을 ‘萬波息笛’이라고 했으니, 이는 바로 모든 풍파를 잠재우는 피리가 아닌가? ‘萬波’는 단지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바다의 파도를 내세워 세상의 온갖 풍파를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잠재워 國泰民安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서는 천리를 거슬러서는 안되고, 천리에 순용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설화 생성은 바로 나라의 安寧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나라의 安寧을 위해서는 임금과 모든 백성들이 서로 화합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적이 쳐들어 왔다가도 물러나고, 병이 전염되지 않고 금방 낫고, 가뭄에는 비가 내리고, 장마 때는 비를 그치게 하여 모든 일이 순조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일연은 이처럼 象數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자신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비단 신라의 역사에 국한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가 이처럼 설화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았던 당시의 나라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고려 말기의 주체 의식이 싹튼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때에 태어나서 산 그였기에 이러한 상수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

4. 맺음말

본고는 『주역』의 이론 가운데 象數學 이론을 바탕으로 <단파식적> 설화 속에 내포하고 있는 神異的 意味를 고찰하였다. 이 신이적 의미를 고찰하게 된 근거는 바로 일연이 『삼국유사』 서문에서 공자의 ‘괴력난신’을 말하지 마라는 말을 비판하는 데 있었다.

이 설화를 시공 현상과 인간 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의미 단위로 가르면 크게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즉, ①神文王 卽位와 感恩寺 創建, ②萬波息笛의 緣起, ③萬波息笛의 繼起 → 夫禮郎의 환국과 萬萬波息笛 등으로 가를 수 있다. 이 가운데 ①은 서두 부분에 해당하고, ③은 일종의 사족에 불과하다. 따라서 ②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설화는 신라 후반기의 시작과 왕조의 흥성을 의미하는데, ②를 낱짜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분하면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이 여섯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산과 거북의 관계이다. 산과 거북은 단순히 외형상의 문제가 아니다. 신라왕조

가운데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과 거북의 관계는 「구지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시간과 공간에 나타난 자연현상과 이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낱씨의 변화에 따라 기술한 내용을 분석하면, 첫째 만민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만민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상하군신이 모두 명분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명분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인간성을 회복하면 밝은 미래가 나타나며, 다섯째 밝은 미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 즉 天理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천리를 따르면 온 세상이 조화롭고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이다.

일연은 이처럼 象數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자신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 鄭求福³⁶⁾ 교수가 말했듯이, 일연이 신이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은, 신비주의를 왕과 일부 특수한 인물의 예시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지극한 信心에 의하여, 또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보통 인간으로서의 믿기 어려운 정도의 인간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고 색, 물질, 세계를 넘어서 時空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상의 신비로움을 왕과 신하, 왕들의 신이한 일들, 김유신의 영험적인 사례를 통하여 예시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주체의식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체의식의 반영은 비단 신라의 역사에 국한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가 이처럼 설화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았던 당시의 나라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고려 말기의 주체 의식이 싹튼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때에 태어나서 산 그였기에 이러한 상수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 이점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역사가들의 몫이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이성은 이 「만파식적」 설화 이외에도 많이 있다. 본고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설화와 시가에 나타난 신이적 의

36) 앞의 註)5 참조.

미를 고찰하는 처음 단계로서 이 「만파식적」을 고찰했다. 거북과 산과의 관계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구지가」이다. 이 「구지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만파식적, 신이성, 象數學, 時空, 인간, 후반기, 만민 화합, 인간성, 명분, 암시, 자연질서, 조화.

참고문헌

- 『삼국유사』(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1978), 『삼국사기』(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1978),
 高翊晉, <삼국유사찬술고>, 『한국사연구』38, (한국사연구회, 1982)
 金煥泰, <만파식적설화고>, 『동국대학교 논문집』11, (동국대학교, 1973.)
 金相鉉, <만파식적 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34, (한국사연구회, 1981)
 _____, <만파식적 설화의 유교적 정치사상>, 『신라사상과 문화』(서울: 一志社, 1999. 6. 30)
 金榮淑, <‘만파식적’ 설화의 전승과 시적 변모 양상 -조선시대 영사악부를 중심으로-』 『신라문화재 학술발표 논문집』11, (신라문화선양회, 1990)
 金哲坡, <고려중기의 문화의식과 사학의 성격>, 『한국사연구』9, (한국사연구회, 1973).
 金煥泰, <일연의 역사의식>, 『경희사학』5, (경희대학교 국사학과, 1974).
 _____, <삼국유사의 체제와 그 성격>, 『동국대학교논문집』13, (동국대학교, 1974).
 金相鉉,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관>, 『한국사연구』20, (한국사연구회, 1978).
 金和經, 『한국설화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7)
 徐廷範, <방언에서 본 만파식적과 문무왕릉>, 『한국민속학』8, (한국민속학회, 1975)
 林在海,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趙東一, <삼국유사 설화연구사와 그 문제점>, 『한국사연구』38, (한국사연구회, 1982)
 黃壽永, <신라법종과 만파식적 설화』 『신라문화』1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

소, 1984)

黃涓江, <삼국유사와 불교설화> 『삼국유사의 연구』 (서울: 중앙출판사, 1982)

高亨, 周易古經今注, (北京: 中華書局, 1984)

金文傑, 大易探微, (青島: 青島出版社, 1999)

周振甫, 周易譯注, (北京: 中華書局, 1994)

徐志銳, 周易大典新注, (山東: 齊魯書社, 1986)

屈文源, 周易演義, (陝西: 人民出版社, 1995)

伍華 主編, 周易大辭典, (廣州: 中山大學 出版社, 1993)

呂紹綱 主編, 周易辭典, (吉林: 吉林大學 出版社, 1992)

唐華, 中國易經哲學思想原理, (臺北: 大中國圖書公司, 1980), 외 다수.

이 논문은 2001년 12월 31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2년 2월 4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The Study on *A Flute-Soothing-All-Waves* based on Numerology

Lee, Ku-eui

[Abstract]

This thesis inquires into a shamanic meaning contained in *A Flute-Soothing-All-Waves* based on numerology in *the book of Changes Used in the Chou Dynasty*. The basis for this inquiry is just on the critical mention on the Confucius' saying, "Confucius did not talk about prodigies, force, disorders, and gods", in the preface of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written by Il-yeon.

A Flute-Soothing-All-Waves could divide into three parts by a semantic unit, focusing on the time-place phenomena and human behaviors. Among these parts, the part corresponding to a main body is to be subdivided, by a currency of date and time, into six parts.

Of these parts, it is the relation of 'mountain' and 'turtle' that has the most important meaning. They means not merely an artificial symbol but the beginning of second-half, passing from the first-half of the Shilla Dynasty. This relation can also be seen in *Song of Guzi*.

Analyzing the content, we can see that it describes natural phenomena shown in time and place and human behavior for this to the date's change. And thus, some themes can be pointed out.

Firstly, it emphasize the harmony of the whole nation. Secondly, For the harmony of the whole nation, it is essential for all the ruling classes to put a just cause to rights. Thirdly, for this, humanity should be recovered. Fourthly, in case humanity is recovered, a bright future emerge. Fifthly, for this, they should follow a natural order, namely Heavenly Providence. Sixthly, following Heavenly Providence, all the world becomes harmonious, and the nation will be stable.

"A shamanic" expressed in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besides

an tale, *A Flute-Soothing-All-Waves*, can be found in so many tales.

This thesis, as first stage for inquiring into a shamanic meaning expressed in the tales and poetic songs in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inquires into *A Flute-Soothing-All-Waves*.

It is *Song of Guzi* that, I think, the relation of turtle and mountain is specified. A further inquiry on *Song of Guzi* still remains.